“갈등·분열 속 상생의 길 모색 합시다”

1월 21일, 종단협 신년하례
진우 스님 등 사부대중 동참
“자비로 사회 전체 행복 증진”
대불련에 장학금 1000만원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께 연등공양을 올리고 있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 지도자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깊어가는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종단협)는 1월 2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2569(2025)년 을사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연등과 꽃 공양, 부처님께 3배로 신년하례를 올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중하례를 나누며 새해 안녕을 기원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자비의 실천으로 행복에 다가가길 서원했다. 스님은 “사회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불교는 ‘자비’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천한다”며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세상에 보다 나은 영향을 미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새해는 우리 사회에 불보살님의 동체대비심이 가득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전 국민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 상생과 통합의 미래를 열어가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모든 국민이 평화로우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쉼 없이 정진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시화연풍’의 시절을 즐기며, 먹을 것이 풍족해 배를 두드리며 살 수 있는 ‘함포고복’의 세상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계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해결해 가야 할 많은 일 앞에 자비와 중도의 가르침이 절실하다”면서 “스님과 불자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는다. (문체부도) 문화의 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연말 사회적 재난 속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다”며 “어려운 시기마다 고승대덕 스님들의 공덕이 미래를 위한 걸음을 내딛게 한다”면서 “국민이 계속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길 바란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동참대중을 대표해 신년발원문을 낭독했다. 능원 정사는 “우리는 지난한 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나라가 혼란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뜻하지 않은 재난과 사고로 큰 아픔을 겪었다”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 사회가 다시 평화와 안정 속에서 희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굽어살펴 달라”고 염원했다.

한편 이날 종단협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이 ‘선법가 40주년 합창제’ 후원금을 종단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한마음선원, 종단 불사 3000만원 ‘쾌척’

1월 20일 총무원장 접견실서
선법가 합창제 모연금 ‘회향’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이 지난해 11월 24일 개최한 ‘선법가 40주년 합창제’ 모연 후원금을 종단 발전 기금으로 쾌척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지난해 개최했던 ‘선법가 40주년 합창제’ 수익금 사용처를 고민하다가 전국 지원들의 뜻을 더해 종단 발전 기금으로 회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내 승가 교육 체계의 변혁을 앞둔 지금, 전달해준 기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의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최근 KCI 등재 학술지가 됐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조직 개편한 조계종연구소에도 많은 도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자리에 배석한 선원 대중에게 인사하며 “후원을 비롯한 선행은 나의 복전(福田, 복밭)을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은 선법가 40주년 합창제에서 모연된 후원기금을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다나에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발족…“정신문명 선도 일굴 것”

1월 20일, 접견실서 위촉식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 산하
초대 위원장에 금강 스님


선명상위원회 위원 21명은 위촉식 수여 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데 힘쓸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조계종 ‘선명상위원회’가 꾸려졌다.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총무원장)’는 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출·재가자 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을 초대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행복선명상센터 지도법사 하림 스님 △남양주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중앙종회의원 종원 스님 △총무원 홍보국장 덕안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여해 스님 △마음치유학교장 혜민 스님 △홍대선원장 준한 스님 △前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 △문사수명상연구원장 일중 스님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 △진관사 명상센터장 혜주 스님을 비롯해 △김열권 붓다선원장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 △김병전 하루명상 대표 등이다.

더불어 선명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도 갖춰졌다. 자문위원은 △카이스트 교수 미산 스님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 선덕 월암 스님 △동국대 이사·前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문경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선법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소장 서광 스님 등 6명이다.

진우 스님은 위원들에 “현대사회에 발맞춘 체계적이고 쉬운 ‘선명상’을 보급해 자연스럽게 불교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한국불교 전통 수행과 명상을 접목시킨 선명상을 전 국민이 실참하게 된다면 불교계가 정신문명사의 선두적 역할을 일궈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초대위원장 금강 스님은 “이제까지 원장스님 홀로 선명상의 기반을 일궜다면 이제부터는 위원들도 지혜를 모아 세상 사람들이 마음 안정을 이루고 지혜와 자비를 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명상위원회는 2월까지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를 개발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3월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선명상 전문가 양성 과정 설계 △법회 시 선명상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공교육 내 선명상 도입 제안도 추진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가령 기자

동국대 조직 개편…미래 동력 구축

BMC부총장 신설…지역 위상 강화
건학 120주년 기념 사업단 신설해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1월 17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58회 이사회 회의를 열고 서울캠퍼스 직제 개편과 첨단분야 정원 증원 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동국대는 지속가능한 대학 운영을 위해 BMC(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부총장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는 4부총장, 1실 11처, 15개 단과대학과 13개 대학원 체제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BMC 부총장 신설은 지역사회의 BMC 위상 강화를 통해 경기도 라이즈(RISE) 사업 수주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또 2026년 건학 기념사업을 전담하는 ‘건학 120주년 기념 사업단’을 신설하고 120주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정원 증원 계획을 통해서는 2026년도 첨단 분야 전공에 대한 증원과 신설할 것이 보고됐다. 동국대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신소재 △양자 △에코업 △바이오 헬스 △차세대 통신 전공 증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사 원명 스님은 “학생 정원 조정에 관련해 불이익이 있는 학과가 분명 있다. 교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 덕문 스님은 “첨단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 종립 대학이라는 정체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학과 신설에 이어 전통 문화유산 보존학과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분야를 동국대가 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및 시행세칙 변경 △교원 인사의 건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학생정원 조정의 건 △동대부금산고 시설적립금 적립계획 변경 승인의 건 △경주병원 로봇 수술기 추가 도입 승인의 건 등을 가결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이사 성행 스님은 지난해 12월 원적한 은사 대궁당 종상 대종사 명의로 동국장학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

제2차 대한언론 문화포럼

대한민국 국운(國運)
원행(遠行) 대종사님에게 듣는다



을사년에 ‘대한민국 국운’ 전망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타개책을 함께 나눠보고자 담론의 장(場)을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5년 2월 6일 (목) 오후 3시~5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연 사 : 오대산 월정사 선덕(禪德) 원행(遠行) 대종사
- 주 최 : 대한언론인회
- 주 관 : 통일국회뉴스 세계평화뉴스
- 후 원 : (사)대한노인회중앙회 행복만들기중앙회
- 연락처 : 010-8455-9009